

우리나라 大學圖書館行政에 관한 研究

—國立大學司書職의 人事行政을 中心으로—

柳 東 烈*

<目 次>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4. 外國語能力
2. 研究의 對象 및 範圍	V. 大學司書職의 士氣分析
3. 研究의 方法	1. 業務에 대한 滿足度 및 成果度
II. 大學圖書館의 機能과 司書의 資質 및 處遇	2. 報酬 및 社會的地位에 대한 評價
1. 大學圖書館의 機能	3. 現職場 勤續期間 및 昇進期間
2. 大學司書의 資質	4. 將來性에 대한 保障感
3. 外國의 大學司書職에 대한 處遇	5. 司書職에 대한 安定感
III. 大學司書職의 背景 및 資質 分析	V. 實態分析의 結果에서 發見된 問題
1. 年齡 및 經歷	1. 資 質
2. 學歷 및 專攻	2. 士 氣
3. 司書資格	VI. 現行人事制度의 缺陷과 그 改善策
	VII. 結 論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現代社會의 特徵의 하나로서 發展의 加速化를
들수 있는바 社會發展의 加速化에 발맞춰 「모든
行政體制가 發展行政體制로 轉換됨에 따라 人事
란 發展의in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일 긴요한 人
力を 供給하는데 優先순위를 두어야 하며」⁽¹⁾ 따
라서 오늘날의 人事行政은 「보다 좋은 사람들을

찾아 政府에서 일하도록 끌어드리고 그들이 열심
히 일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條件을 갖추어 주는
積極的인 役割을 맡도록 요구되고 있다.」⁽²⁾

그러나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人事行政에 있
어서는 積極的인 役割은 거의 눈에 띠지 않고 있
다.

國內에서는 比較的 나은 편이라고 보는 서울大
學校圖書館을 診斷한 結果 「藏書 및 奉仕의 發展
에 대한 가장 큰 障碍는 緒訓練되고 經歷이 豐
富한 豐裕한 司書職의 缺乏이라」⁽³⁾고 指摘되었으
며 「萬一 이러한 欠陷을 가까운 將來에 克服하지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第十八回(1978)卒業

(1) Frederick C. Mosher; "The Public Service in the Temporary Societ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XXXI, no. 1. (Jan.-Feb. 1971), p. 57. 朴東緒, 人事行政論, 第2改訂版, (서울: 法文社, 1974), p. 14. 再引用.

(2) 吳錫泓, 人事行政論, 重版, (서울: 博英社, 1977), p. 18.

(3) Louis E. Martin, *The Librar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tatement on Management*. (Washington, D.C.: May 1972), p. 8.

못하는限 아무리 좋은組織機構나管理技術도 그效果는極히一部分에 그치고 말것이다.」⁽⁴⁾라고示唆한 바 있다.

主導的役割을擔當해야 할 서울大學校圖書館이 이려할진대 餘他 國立大學圖書館에 대하여는 不問可知하다.

따라서筆者는 우리나라 大學司書職의 實態를 締密히 分析하고 現行人事制度의 缺陷을 究明한 다음 先進外國의 制度를 參考로 하여 이에 대한改善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2. 研究의 對象 및 範圍

1) 研究의 對象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이當面하고 있는問題로는組織, 職員, 藏書, 施設, 豫算등 難問題가 許多하지만 그중 가장 時急하고도 緊要한人事問題를 다루기로 하여 本稿에서는 國立大學圖書館의人事行政의 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國立大學司書職」을 研究의 對象으로 하고「私立大學司書職」을 比較對象으로 하였다.

2) 研究의 範圍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大學司書職들의 年齡, 經歷, 學歷, 專攻, 司書資格 그리고 外國語解得能力등 背景과 資質을 調查함과 同時に 精神的次元에서 圖書館이라는 職場에 關하여 그들이 느끼는 滿足度 및 業務의 成果度, 報酬와 社會的地位에 대한評價, 司書職이라는 職業에 대한 安定感 그리고 將來에 대한 期待感등 士氣를 調査하고 이를 分析, 檢討하여 先進 外國大學의 司書職과比較 考察하기로 한다.

3. 研究의 方法

社會科學의 研究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그研究方法인자라 이研究에서는妥當性있는結果를 얻기 위하여 文獻調查와 設問調查를 아울러 採擇하였다.

1) 文獻調查

大學司書職에 대하여 制度的側面을 考察하기위

하여는 現行人事關係 法規나 統計, 그리고 이미發表된 文獻을 通하여 그 實態를 調査하였다.

2) 設問調查

한편 그들의 背景과 主觀的인 士氣등 行態를 調査하기 위하여는 設問紙法을 使用하였다.

그러나 士氣調查에서 찾아내려는 것은 그들의精神狀態이기 때문에 直接的이고 客觀的인 測定은 매우 어려우므로「客觀的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表現 또는 行態를 먼저 포착하고 그것으로부터 士氣의 狀態를 推定하는 것」⁽⁵⁾이 바람직하며「客觀的인 資料로부터 主觀的인 精神狀態를 推定해내는 과정에는 解釋 또는 判斷이 介入되어 차치 잘못하면 그 調査의 價值가 損傷된다.」⁽⁶⁾

따라서 多少 非組織의이고 嚴正性이 稀薄하긴 하나筆者の 20餘年間의 經驗과 日常的觀察, 情報蒐集에서 얻은 士氣水準에 대한 어느 程度의 印象 즉 體驗을 調査의 補助方法으로 삼았다.

(1) 調査表作成

設問調查에 있어서는 設問項目設定如何에 따라 그結果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으며 또妥當性을 認을 考慮도 있므로 設問方式으로는「多項選擇式開放式, 評定式, 賛否式 및 序列式」⁽⁷⁾등 여티 가지 質問形式을 고루併用하였다.

(2) 調査對象의 選定

1977年現在 우리나라 大學(4年制以上)의 總數는 73個校에 達하여 각校 圖書館을 가지고 있다. 그중 國立大學校에 대하여는 6個館 全數調查를 試圖하였으며 私立大學校에 대하여는 比較的 規模가 큰 圖書館으로서 서울에서 6個館, 地方에서 3個館을 任意로 選定하여 都合 15個圖書館을 調査對象으로 삼았다.

調查對象 15個圖書館에 勤務하는 司書職 256名에게 設問紙를 配布하여 209名(81.6%)의 應答을 얻었다.

比較的回收率이 良好하였음은 調査趣旨에 대한同調者가 많았다는 것과 同業人意識이 많이 作用된 것으로 짐작된다.

(3) 調査結果의 處理

(4) Loc. cit.

(5) 吳錫泓, 前揭書, p. 481.

(6) 上揭書, pp. 481-482.

(7) 金海東, 調査方法論講義. (서울:三中堂, 1962), pp. 130-136.

<表 1>

調査対象 및 設問紙 回收率

	國 立 大 學 校				私 立 大 學 校				計			
	圖 書 館 數	配 布 數	應 答 者	回 收 率	圖 書 館 數	配 布 數	應 答 者	回 收 率	圖 書 館 數	配 布 數	應 答 者	回 收 率
서 울	1	62	59	95.2	6	106	82	77.4	7	168	141	83.9
地 方	5	56	44	78.6	3	32	24	75.0	8	88	68	77.3
計	6	118	103	87.3%	9	138	106	76.1%	15	256	209	81.6%

各大學圖書館을 通하여 收合된 設問紙는 電子計算機에 의하여 計量化하고 各種 統計表를 얻었으나 入力作業의 未熟으로 必要以上의 出力이 있었던바 이研究에 꼭 必要한 것만을 가려 뽑아 이를 圖表나 表로 作成하고 이것을 中心으로 하여 分析을 試圖하였다.

Ⅱ. 大學圖書館의 機能과 司書의 資質 및 處遇

1. 大學圖書館의 機能

「大學이 갖는 教育目的을 좀더 效果的으로 達成시키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教育施設의 必要性이 切實하며 그중에서도 圖書館은 그 核이다. 圖書館이 갖는 內容이 곧 大學의 評價基準이 될수도 있다.」⁽⁸⁾

美國의 大學 및 研究圖書館協會에서 採擇한 基準에 의하면 「大學圖書館은 大學社會속에서 가장 重要한 知的資源이어야 하며 適正數의 有能한 職員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奉仕는 그 大學의 教育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調整되어야 한다」⁽⁹⁾고 強調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大學圖書館의 役割은 教授와 學生을 위하여 國際的水準의 各種 專門誌를 完備하고 讀書資料에 關한

諮詢, 研究資料 및 情報를 交換하고 여러가지 奉仕를 해줌으로써 學生教育은勿論 研究活動의 案內者로서 大學教育施設의 核의 位置를 繼續維持해야 한다」⁽¹⁰⁾고 力說하고 있다.

「司書는 調査 및 研究方法에 있어서는 한 教授로서 學生을 指導하게 되며 教授들의 授業 및 研究를 積極的으로 도우며」⁽¹¹⁾, 또 「大學의 目的에서 보면 研究調查機關으로서의 機能」⁽¹²⁾도 아울러 지닌 教育의 한 機構로서 生動的으로 運營되어야 한다.

2. 大學司書의 資質

大學司書에게 要求되는 資質에 관하여 確定된 基準은 없으나 Francis卿의 主張은 「그 하나는 文獻의 重要性과 效率性에 대한 信條와 또 하나는 利用者에 대한 奉仕의 信條」⁽¹³⁾를 들고 있으며 Thompson은 「높은 學位를 갖어야 할 形式을 따른 學問의 面과 司書資格證을 갖어야 할 形式을 따른 專門職으로서의 兩面을 啓發하고 適當히 調和시켜 갖추는 것」⁽¹⁴⁾라고 하듯이 司書職에게 要求되는 資質은 多樣하다.

1) 一般的敎養

大學司書는 教授 및 學生의 調査와 研究를 도울수 있는 者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圖書館技術教育을 받았드래도 一般的敎養을 받지 못한

(8) 서울대학교企劃委員會, 教育研究 및 機構組織分科委員會, 研究報告書, (1971年 2月), p. 90

(9) 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Committee on Standard,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 XX. no. 14(July 1959), p. 274.

(10) 서울대학교企劃委員會, 教育研究 및 機構組織分科委員會, 前掲書, p. 90.

(11) M.A. Gelfand, *University Libraries for Developing Countries*. (Paris: UNESCO, 1971), p. 25.

(12) 椎名六郎, 岩猿敏生, 圖書館概論, (東京: 雄山閣, 1977), p. 84.

(13) James Thompson, *An Introduction to University Library Administration*, (London: Clieve Bingley, 1974), p. 27.

(14) *Ibid.*, p. 26.

사람이면 훌륭한 司書는 될 수 없다」⁽¹⁵⁾

2) 知 識

大學司書에게 要求되는 知識 중 「主題에 대한 知識이 必須條件이라고 確信한 主題專門家인 非司書職 館長이 自己 멋대로 하다가 당진 圖書館의 事例는 너무나 많다」⁽¹⁶⁾는 말은 主題에 대한 知識外에 圖書館學知識이 絶對 必要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外國語에 대한 知識까지도 要求되고 있다.

3) 管理能力

Palmore는 「司書가 갖추어야 할 資質에 관하여 19개項目」⁽¹⁷⁾을 들고 있는바 그 全部가 一般管理者로서 지녀야 할 資質인 것을 보면 管理能力亦是 必要함을 알 수 있다. 또 「一般的으로 組織階序制의 上位置에 올라 갈수록 監督者는 一般家로서의 素養을 必要로 하게 된다」⁽¹⁸⁾ 따라서 司書職中 管理層에게는 一般管理能力까지도 要求된다.

3. 外國의 大學司書職에 대한 處遇

1) 美國의 制度

美國의 大學은 그 「發展과 함께 一般的으로 大學教授의 範圍가 擴大되어 오늘날에는 Counselor나 司書職까지도 教授에 包含되게 되었다.」⁽¹⁹⁾ 1967年 Madan 등이 實施한 美國의 4年制州立大學 321個校의 圖書館調查에 의하면 司書職으로서 「教授職과 꼭 같은 待遇를 받는 곳이 約 3分의 2 (61.3%)에 達하고 있다.」⁽²⁰⁾

2) 英國의 制度

「大學卒業者級은 債給水準에 따라 館長, 副館長, 館長補佐등 몇개 等級으로 區分되어 館長은 教授의 債給과 같으며 館長補佐는 講師와 같은 待遇를 받고 있다」⁽²¹⁾

3) 日本의 制度

英美諸國의 程度의 優待는 받지 못하고 있으나 「一般職에 比하여 昇級에 어느 程度 配慮가 있고 部課長制의 實施擴大로 그 登用이 길이 擴大되어 가고 있으며」⁽²²⁾ 「1級司書官은 教授相當, 2級司書官은 助教授, 講師相當, 3級司書官은 助教相當으로 待遇하는 制度案」⁽²³⁾이 提唱되고 있다.

III. 大學司書職의 背景 및 資質 分析

1. 年齡 및 經歷

1) 年 齡

大學司書職은 高度의 知識과 技術을 必要로 하는 職種이며 이런 資質을 갖추려면 大學卒業後 10年程度의 經歷을 쌓아야 되며 그렇게 되려면 自然히 年齡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國立大學司書職中에는 「30歲以下」가 46.6%로서 거의 半數를 차지하고 있는 形便이다.

2) 經歷

또 經歷을 보아도 「10年以上」 經歷者는 17.4%에 不過하며 「10年 未滿」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國立大學圖書館에는 未熟한 司書들이 業務를擔當하고 있으므로 業務의 成果가 優秀하기를 期待할 수 없는 實情이다.

(15) 岩猿敏生, **大學圖書館**, (東京: 雄山閣, 1976), p. 64.

(16) Louis Round Wilson and Maurice F. Tauber, *The University Library*. 2. ed.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56), p. 275.

(17) James Thompson, *Op. Cit.*, pp. 27-28.

(18) 趙錫俊, **組織論**, 全訂版, (서울: 法文社, 1973), p.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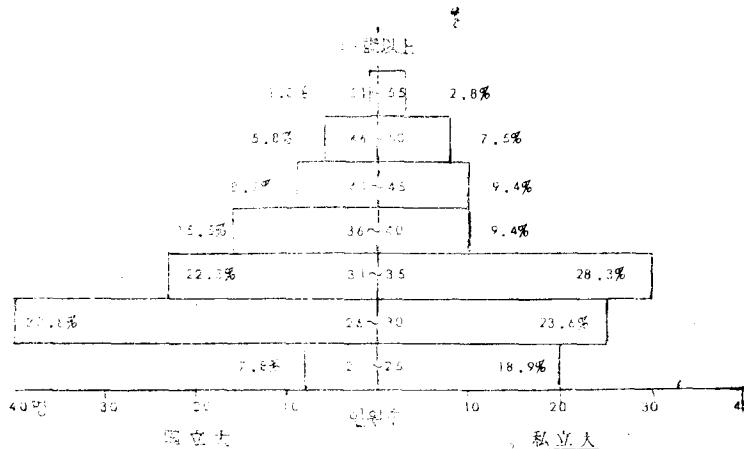
(19) Arthur M. McAnally, "The Dynamics of Securing Academic Statu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 XVIII(1957) pp. 387-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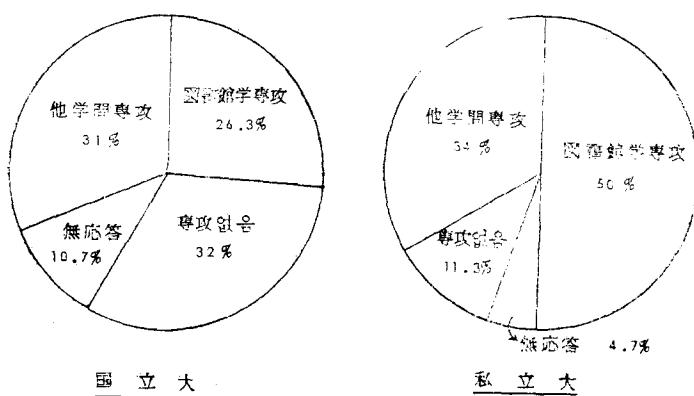
(20) Raj Madan, Eliese Hetler and Marilyn H. Strong, "The Status of Libraries in Four-year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 Case for Faculty Status for American Librarians*, ed. by Lewis C. Branscomb. (Chicago; A.L.A., 1970). p. 99.

(21) University Grants Committee, *Report on the Committee on Libraries*. (London: HMSO, 1967), p. 142.

(22) 日本, 國立大學協會, **大學の研究・教育に對する 圖書の在り方とその改革について**; 第2次報告書, (1975年 11月), p. 34.

(23) 上揭書, p. 35.





〈圖 4〉 司書職의 專攻分布 比較

이와 같이 圖書館學專攻者の比率이 낮은 것은 元來 司書職을 願치 않았으나 뚜렷한 目的 없이 偶然한 機會에 圖書館에 就職하였거나 마지못해 生業으로 擇한 사람이 적지 않음을 말하여 준다.

3. 司書資格

1) 資格區分과 그 分布

國立大學司書職中 資格證所持率이 91.3%이고 私立大學의 경우에는 80.2%에 不過한 것을 보면 一見 外形的으로는 國立大學側에 優秀한 司書가 많아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内容을 살펴보면 私立大學에는 正司書가 65.1%，準司書가 14.2%의 分布인데 比하여 國立大學의 경우에는 正司書가 49.5%，準司書가

41.7의 分布로서 正司書가 많지 못하다는 것은 優秀한 司書가 많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그들의 資格取得을 위한 教育課程을 調査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資格取得 教育課程

司書資格을 取得하기 위한 教育課程은 매우 多樣하다. 즉 正司書課程으로서는 ① 大學院圖書館學專攻課程, ② 大學圖書館學科, ③ 司書教育院 1年課程 등이 있으며 準司書課程으로서는 ① 初級大學 및 專門學校圖書館科, ② 司書教育院 1年課程, 그리고 ③ 2個月 短期講習課程 등이 있다.

國立大學司書職中 圖書館學科卒業以上이 不過 29.1%，1年課程修了者가 17.5%이고 2個月 短期講習課程修了者가 44.7%로서 壓倒的으로 많다.

〈表 2〉

司書資格證所持率比較

	資 格 證 所 持					資 格 證 未 所 持	合 計					
	正 司 書	準 司 書	司 書 教 師	小 計								
國立大	51	49.5	43	41.7	0	94	91.3	9	8.7	103	100	
私立大	69	65.1	15	14.2	1	0.9	85	90.2	21	19.8	106	100
計	120名	57.4%	58名	27.8%	1名	0.9%	179名	85.6%	30名	14.4%	209名	100%

〈表 3〉

司書資格取得 教育課程比較

	大 學 院 圖 書 館 學 科					年 短 期 講 習			其 他	小 計	資 格 證 未 所 持	合 計				
	大	學	院	圖	書	學	科	課								
國立大	4	3.9	26	25.2	18	17.5	46	44.7	0	0	94	91.3	9	8.7	103	100
私立大	7	6.6	39	36.8	21	19.8	10	9.4	8	7.5	85	80.2	21	19.8	106	100
計	11名	5.3%	65名	31.1%	39名	18.7%	56名	26.8%	8名	3.8%	179名	85.6%	30名	14.4%	209名	100%

이와 같이 短期講習課程修了者가 많은 理由로서는 國立大學에서는 待遇가 不實하여 正司書資格者의 誘致가 困難하므로 不得己 低學力者를 臨時職으로 雇傭했다가 2年以上 經過後 短期講習課程을 通過하여 準司書資格證을 取得한 後 特別採用試驗에 의하여 内部任用할 수 밖에 없는 狀況이 繼續되었기 때문이다.

4. 外國語能力

大學圖書館의 學術文獻情報 및 資料는 外國語로 된 것이 大部分이기 때문에 主題에 대한 知識 못지 않게 要求되는 것에 各種 外國語의 解得能力이다.

그러나 外國語解得能力의 客觀的 測定은 實際上 매우 困難하므로 不得己 主觀的인 測定方法을 쓸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이 調查에서는 外國語資料를 다룸에 있어서各自가 느끼는 程度를 上, 中, 下 3等級으로 그 水準을任意로 設定하여 測定하였다.

1) 英 語

國立大學司書職의 英語能力을 보면 「上」이 6.8%에 不過하며 그 代身 「下」는 42.7%나 되는 것을 보면 私立大學의 경우와를 比較할 때 훨씬 낫게 나타났다.

2) 獨逸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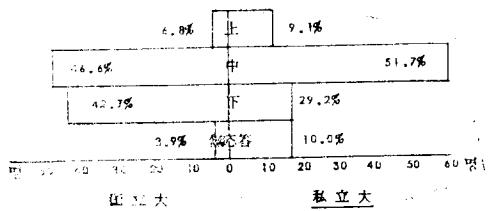
또 獨逸語解得能力을 보면 「上」이 1.0%, 「中」

〈表 4〉 獨逸語 및 佛蘭西語 解得能力 比較

	獨逸語					佛蘭西語				
	上	中	下	無應答	計	上	中	下	無應答	計
國立大	1	1.0	6	5.8	50	48.5	46	44.7	103	100
私立大	1	0.9	8	7.5	42	39.6	55	51.9	109	100
計	2	1.014	6.792	44.0	101	48.3	209	100	2	1.0

〈表 5〉 中國語 및 日本語 解得能力 比較

	中國語					日本語				
	上	中	下	無應答	計	上	中	下	無應答	計
國立大	2	1.9	3	2.9	33	32.0	65	63.1	103	100
私立大	1	0.9	4	3.8	24	22.6	77	72.6	106	100
計	3	1.4	7	3.357	27.3	142	67.9	209	100	22



〈圖 5〉 英語解得能力 比較

이 5.8%, 「下」가 48.5%로서 解得者は 겨우 過半數程度이며 그 大部分이 「下」水準임을 알 수 있다.

3) 佛蘭西語

더욱이 佛蘭西語의 경우에는 「上」이 1.0%, 「中」이 1.9%, 「下」가 32.0%로서 解得者가 全體의 3分의 1程度이며 그나마도 大部分이 「下」水準으로서 獨逸語能力水準 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4) 中國語

中國語의 解得能力水準을 보면 解得者は 36.9%이고 그 大多數가 「下」程度의 水準이며 佛蘭西解得能力水準과 거의 비슷할 程度로 낮다.

5) 日本語

日本語解得能力水準을 보면 「上」이 4.9%, 「中」이 19.4%, 「下」가 47.6%로서 解得者가 71.9%의 分布로서 比較的 높은 평이지만 「中」以上은 不過 24.3%로서 그리 滿足 스러울 程度가 못된다.

以上과 같이各自가 느끼는 外國語의 解得能力

水準이 낮은條件下에서 洪水같이 范濫하는 外國資料를 優秀하게 다루기를 期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IV. 大學司書職의 土氣分析

職員의 土氣가 業務能率에 미치는 影響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調查에서는 여러가지側面에서 土氣를 調査하였다.

1. 業務에 대한 滿足度 및 成果度

1) 業務에 대한 滿足度

事物에 대한 滿足感은 時差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司書職就業當時에 느낀 業務에 대한 滿足度와 現時點에서 느끼는 滿足度와를 比較하고兩者間의 函數關係를 充明하기로 한다.

(1) 國立大學司書職中에는 元來 「司書職은 願하던 職業」이 아니라는 應答者가 56.3%로서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다.

〈表 6〉 司書職 希望與否 比較
「司書職은 貴下가 願하던 職業이었습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	無應答	計
國立大	45	43.7	58	56.3
私立大	59	55.7	43	40.6
計	名	%	名	%
	103	49.8	101	48.3
	4		4	1.9
			209	100

(2) 그렇다면 現時點에와서는 現業務에 대하여 느끼는 滿足度는 어떠한지?

司書職은 「願하던 職業」이라고 한 應答者中 現時點에서도 「滿足」이 40.3%인데 比해 「願치 않던 職業」이라고 한 應答者中 現時點에서의 「滿足은 14.9%에 不過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就業當時의 動機가 現時點에서 業務에 대하여 느끼는 滿足度에 미치는 影響은 絶對의이라 할수 있다.

2) 業務의 成果度

(1) 「圖書館의 司書業務는 원만하게 遂行되고

〈表 7〉

司書職 希望與否와 職務에 대한 滿足度 比較

「司書職은 귀하가 願하던 職業입니까?」 또 「지금에와서는 現職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럼 다						그 럼 지 않 다						無應答	合計
	매우 満足	약간 満足	보통	약간 不満	아주 不満	小計	매우 満足	약간 満足	보통	약간 不満	아주 不満	小計		
國立大	5 11.1	12 26.7	12 26.7	11 24.4	5 11.1	45 100	1 1.7	5 8.6	26 44.8	19 32.8	7 12.1	58 100	0	103
私立大	8 13.6	17 28.8	18 30.5	11 18.6	5 8.5	59 100	3 7.0	6 14.0	16 37.2	13 30.2	11.6 11.6	43 100	4	106
合 計	13 12.5	29 27.8	30 28.8	22 21.2	10 9.6	104 100	4 4.0	11 10.9	42 41.6	32 31.7	12 11.9	101 100	4	209名
總計比率					104 49.8							101 48.3	4	209名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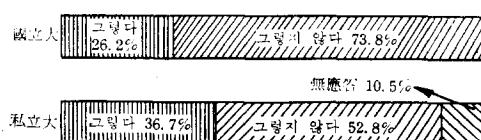
「귀하가 볼때 귀 圖書館의 司書業務는 원만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있느냐」는 質問에 대하여 國立大學 司書職中에는肯定的인 應答者가 不過 26.2%이며 大多數가 否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業務의 成果度에 대한 各自의 主觀的인 判斷이 이러 할진대 客觀的으로 冷徹하게 評價한다면 그成果度는 더욱더 低調할 것임이 分明하다.

그렇다면 그 原因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要因分析이 必要하여 司書業務의 不振事由를 알아보았다.

(2) 司書業務가 圓滿치 못한 原因으로서 셋을



〈圖 6〉 業務의 成果度 比較

<表 8>

司書業務의 不振事由

「司書業務가 원만치 못하다면 그原因是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중重要な 것 셋만 골라重要度에 따라 1, 2, 3으로 기입하십시오.」

主 要 原 因	원인 셋을 優先順位로 指摘한 사람								無 應 答	合 計		
	人 力 不 足	知 識 不 足	外 國 語 能 力 不 足	人 事 管 理 缺 陷	業 務 規 定 缺 陷	香 氣 不 適 不 必 要 干 涉	其 他	小 計				
셋 을 指 摘 한 것 中 優 先 順 位	첫 째 原 因	29 28.2	15 14.5	11 10.6	28 27.2	15 14.6	4 3.9	0 1.0	103 100	26 3	132	
	둘 째 原 因	12 11.9	22 21.8	18 17.8	28 27.2	12 11.9	5 5.0	4 4.0	0 100	26 5	132	
	셋 째 原 因	13 13.0	19 19.0	16 16.0	14 14.0	15 15.0	9 9.0	11 11.0	3 3.0	100 100	26 6	132
平 均 值	平 均 值	18 17.8	19 18.8	15 14.9	22 21.8	14 13.9	6 5.9	5 5.0	2 2.0	101 100	26 5	132
	合 計									101名 76.5	26名 19.7	5名 3.8

골라 그重要度에 따라 應答한 이가 76.5%이며, 그原因 셋을 고르기는 하였으나 重要度를 表示 치 않은 이가 19.7%, 無應答이 3.8%의 比率를 나타났다.

위 表에서 보면 司書業務의 不振事由 중 <첫째原因>으로 指摘된 것은 ①「人力의 不足」, ②「人事管理의 缺陷」③「知識의 不足」, ④「業務規定의 缺陷」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둘째原因>으로 指摘된 것은 ①「人事管理의 缺陷」, ②「知識의 不足」, ③「外國語能力의 不足」④「人力의 不足」과 「業務規定의 缺陷」의 順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原因>으로 指摘된 것은 ①「知識의 不足」②「外國語能力의 不足」③「業務規定의 缺陷」④「人事管理의 缺陷」의 順으로 나타났다.

이를 綜合하여 보면 司書業務의 不振事由로서는 ①「人事管理의 缺陷」②「知識의 不足」③「人力의 不足」④「外國語能力의 不足」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 報酬 및 社會的地位에 대한 評價

「보다 많은 報酬를 받을 수 있다는 可能性과 期

待는 대개의 경우 公務員으로 하여금 能力과 業務能率을 向上시키도록 유인하는 效果가 있다」⁽²⁵⁾고 볼 수 있으며 각자가 느끼는 社會的地位에 대한 評價는 土氣를 端的으로 表示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報酬와 社會的地位에 대한 評價를 關聯시켜兩者的關係를 알아보았다.

1) 報酬

<表 9> 大學司書職의 月平均收入의 比較

「1977年度 前年期平均 月收入 平當, 賞與金 包含」

	國立大	私立大
1人當 平均 月收入	104,800원	165,918원
計	103名	106名
30~35만원以上	0	7
25~29만원	0	8
20~24만원	2	16
15~19만원	12	25
10~14만원	38	30
5~9만원	48	9
5만원未滿	0	1
無應答	3	8

(25) 田中敬, 「圖書館員の資格に就て」, 圖書館雜誌, 第73號(1925年 11月) p. 10. 椎名六郎, 岩猿敏生, 前掲書, p. 107.

國立大學司書職은 一般職公務員에 屬하는지 라 그 報酬의 水準이 낮은 것은 當然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同種의 業務에 從事하는 私立大學司書職의 報酬의 水準과를 比較하기 위하여 圖書館에서의 1977年度前半期의 月平均收入을 調査하였다.

위 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私立大學司書職中에는 月收入 「220萬원 以上」이 29.2%로서 全體의 3分의 1에 達하며 「30萬원 以上」도 6.6%나 되는 데 比해 國立大學의 경우에는 最高 「20~24萬원」이 全體의 2%에 不過하다.

또 私立大學의 경우는 1人當 平均月 收入이 165,918원데 比해 國立大學의 경우는 104,800원

으로서 그 差額은 61,118원이나 되어 兩者的 比率은 100對 63.1로서 國立大學司書職의 收入은 私立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社會的地位에 대한 評價

國立大學司書職中에는 72.8%가 그들의 社會的地位를 낮게 評價하고 있다.

특히 男性은 82.4%가 이를 낮게 評價하고 있음에 比하여 女性은 60.9%가 이를 낮게 評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女性보다 男性이 社會的地位를 더 낮다고 評價하고 있는 理由는 男性들은 薄俸으로써 生計를 維持해야 하므로 物質的인 生活難에서 오는 心理的 委縮感이 크게 作用하고

表 10

社會的地位에 對한 評價比較

「귀하의 모든 與件으로보아 현재 귀하의 社會的地位는 어느 정도라고 느끼십니까?」

設立者別		매우 높다	높은편이다	중간정도다	낮은편이다	아주 낮다	無應答	合計
國立大	男	0	1	1.8	9	15.7	37	64.9% 10 17.5 0 57 100%
	女	1	2.2	0	17	36.9	23	50.0% 5 10.9 0 46 100%
	計	1	1.0	1	26	25.2	60	58.2% 15 14.6 0 103 100%
私立大	男	0	5	8.8	21	36.8	24	42.1% 6 10.5 1 1.8 57 100%
	女	0	0	35	71.4	13	26.5	1 2.0 0 49 100%
	計	0	5	4.7	56	52.8	37	34.9% 7 6.6 1 0.9 106 100%
合計	男	0	6	5.3	30	26.3	61	53.5% 16 14.0 1 0.9 114 100%
	女	1	1.1	0	52	54.7	36	37.9% 6 6.3 0 95 100%
	計	1	0.5	6	2.9	82	39.2	97 46.4% 22 10.5 1 0.5 209名 100%

있기 때문인 것으로 解釋된다.

3. 現職場 勤續期間 및 升進期間

大學司書職은 그 圖書館의 藏書構成의 内容 및 資料組織方式, 利用者들의 特異性, 그리고 그 圖書館의 性格과 傳統을 完全히 把握해야 하므로 그 循環補職의 範圍를 그 圖書館의 各部署로 局限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 現職場 勤續期間

同一職場 勤續期間을 보면 私立大學의 경우는 「10年以上」勤續者가 21.7%인데 比해 國立大學의 경우는 14.5%에 不過하다.

옆 圖 7에서 보는바와 같이 私立大學의 경우는 勤續期間이 길수록 그 人員數가 遞減現象을 나타내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데 比해 國立大學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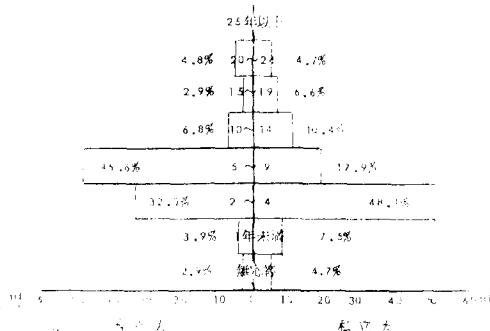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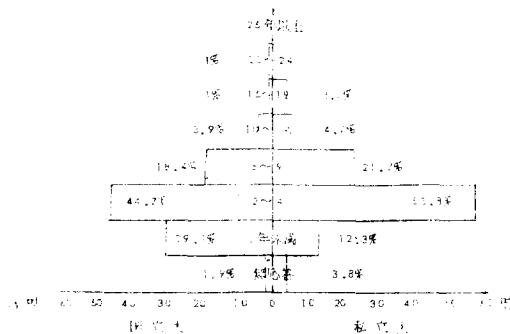


图 7) 現職場 勤續期間 比較

우에는 勤續期間의 長短과 勤續者數와는 아무런 關係가 없는 것으로 보아 長期勤續者는 이미 他處로 많이 流出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昇進期間

昇進期間을 알아보기 위하여 現職級勤續期間을 調査하는 것이 보다 容易하다고 생각되어 同一職級勤續期間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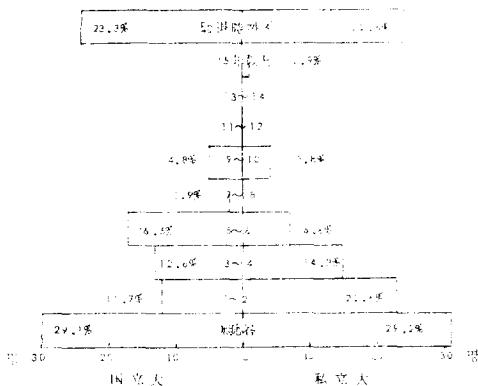
〈圖 8〉 同一職級勤續期間比較

〈表 11〉

將來性에 대한期待比較

「現在의 司書職業務를 열심히 수행한다면 앞으로 보다 나은生活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設立者別	将來性에 대한期待比較								合計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아마 노릇 게 될 것이다	아마 그럴 게 되기 어렵거나 려울 것이다	도저히 그렇게 안되리라고 믿는다	알 수 없다고 믿는다	無應答	合計							
國立大	4	3.9	31	30.1	45	43.7	10	9.7	132.6	0	103	100		
私立大	2	1.9	33	31.1	45	42.5	13	12.3	8	7.5	5	4.7	106	100
合計	6	2.9	64	30.6	90	43.1	23	11.0	21	10.0	5	2.4	209名	100%



〈圖 9〉 司書職繼續從事希望期限比較

2) 現職業에 대한繼續從事希望期限

그렇다면 「언제까지 司書職에 從事할 생각」이 하는 質問에 대하여 無應答者が 29.1%나 되고 「隱退時까지」가 23.3%의 比率로 나타나 있다

國立大學司書職의 昇進期間을 보면 「10年以上 20年」間 現職級에 머무르고 있는 이가 5.9%나 되는 것을 보면 無能하여 進級 못하고 있다고 解釋되기도 하지만 全國立綜合大學의 6個圖書館의 司書職總數 121名中 3級乙類인 司書官의 定員이單 3名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上位職으로의 昇進機會가 얼마나 稀薄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4. 將來性에 대한 保障感

1) 將來에 대한期待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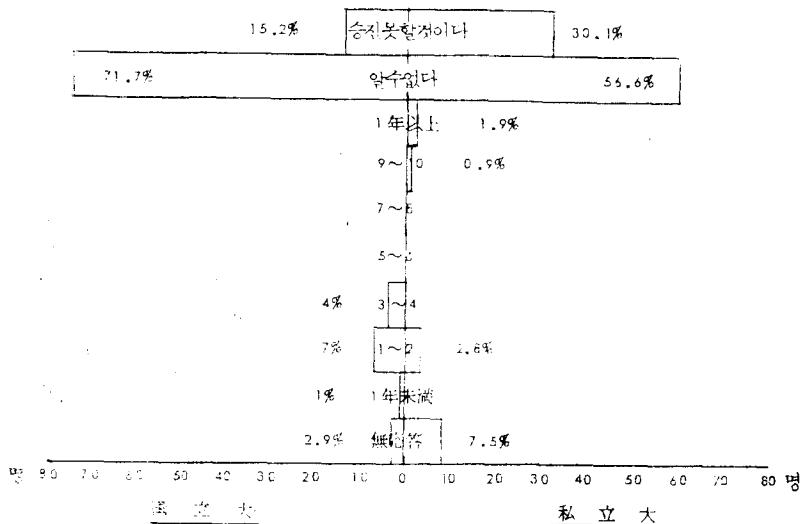
「現在의 司書職務를 열심히 수행한다면 앞으로 보다 나은生活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質問에 대하여 國立大學司書職中에는 肯定的應答者は 34%이고 오히려 否定的應答者が 壓倒的으로 6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前述한 바와 같이 經歷도 적고 年齡도 낮음에 反하여 「11年以上」의 長期勤續希望者は 하나도 없으며 또 바로 앞의 「將來性에 대한期待調查」에서 否定的인反應이 壓倒의 이었다는 것과를 關連시켜 볼 때 29.1%의 無應答은 不安定狀態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隱退時까지」라는 應答者中에는 現職을 그만 두었자 별 수 없다고 締念한 이가 적지 않이 包含되어 있다고推測된다.

將來性에 대한期待나 希望을 갖지 못하고 있는 原因을 明確하기 위하여 다른 角度에서 이를 調査하였다.

3) 昇進期待年限

「昇進할 수 있으리라고期待되는時期는 大略 언제쯤으로 보느냐」는 質問으로써 昇進期待感의 有無를 間接的으로 打診하였던 바 國立大學司書職中 88%가 昇進에 대한自信을 갖지 못하고 있



〈圖 10〉 昇進期待年限 比較

〈表 12〉

國立大學司書職의 昇進期待 最高階級

應答者職級	알수없다	5級甲類	4級乙類	4級甲類	3級乙類	3級甲類	2級乙類	無應答	合計
3乙 및相當	3 2.9	0	0	0	0	2 1.9	0	0	4 3.9
4級甲類	7 6.8	0	0	1 1.0	7 6.8	3 2.9	0	1 1.0	19 18.4
4級乙類	2 1.9	0	1 1.0	9 8.7	2 1.9	2 1.9	0	2 1.9	18 17.5
5級甲類	9 8.7	2 1.9	2 1.9	7 6.8	8 7.8	0	0	3 2.9	31 30.1
5級乙類	11 11.6	4 3.9	3 2.9	6 5.8	0	3 2.9	0	2 1.9	30 29.1
合計	33 32.0	6 5.8	6 5.8	23 22.3	17 16.5	10 9.7	0	8 7.8	103名 100%

는 것으로 判斷되므로 그들의 昇進機會가 얼마나
稀薄한지 짐작할 수 있다.

4) 昇進期待 最高職級

昇進期待感의 有無를 再確認하기 위하여 그들이
昇進할 수 있으리라고 期待하고 있는 最高職級을
알아본 바 「3級甲類」까지 昇進될 수 있으리라는應
答者는 不過 9.7%이며 「3級乙類」까지가 16.5%
로서 「3級」까지 昇進될 수 있으리라는 應答者 都
合 26.2%를 除外한 約 4分의 3은 昇進期待感은
거의 없는 것으로 推測된다.

5. 司書職에 대한 安定感

職業에 대한 安定感의 有無가 士氣와 業務能率
에 미치는 影響은 至大하다고 보아 司書職에 대
한 安定感의 有無를 알아보기로 한다.

1) 轉職意思의 有無

國立大學司書職中에는 「轉職할 意思가 있다」는
應答者가 60.2%의 高率을 나타내고 있다.

2) 轉職希望 職責

轉職을 希望하는 者中에는 아주 다른 職業을

〈表 13〉

轉職意思 有無 比較

「혹 다른 職場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라도 있으십니까?」

	있	다	없	다	無	應	答	合	計
國立大	62	60.2	40	38.8	1	1.0	103	100	
私立大	56	52.8	45	42.5	5	4.7	106	100	
計	118名	56.5%	85名	40.7%	6名	2.8%	209名	100%	

〈表 14〉

轉職希望職責比較

設立者別	다른 大學 圖書館으로 옮기고 싶다	다른 圖書 館으로 옮기고 싶다	現大學의 다른 職責으로 옮기고 싶다	아주 다른 職業으로 옮기고 싶다	其	他	無	應	答	合	計			
國立大	7	11.3	9	14.5	10	16.1	27	43.6	7	11.3	2	3.2	62名	100%
私立大	3	5.4	6	10.7	5	8.9	37	66.1	2	3.6	3	5.4	56名	100%
合 計	10	8.6	15	12.7	15	12.7	64	54.2	9	7.6	5	4.2	118名	100%

〈表 15〉

轉職希望事由比較

轉職事由	經濟的 生活難	昇進可能 性의稀薄	專攻과의 不一致	能 力 不 足	社會的 認識不足	性格과의 不一致	其 他	無 應 答	合 計	比率(%)
하나	國立大 27.8	15 29.6	5 9.3	2 3.7	2 3.7	8 14.8	2 3.7	4 7.4	54名	100%
指摘	私立大 18.2	8 20.5	3 6.8	0	6 13.6	6 13.6	7 15.9	5 11.4	44名	100%
小計	23 23.5	25 25.5	8 8.2	2 2.0	8 8.2	14 14.3	9 9.2	9 9.2	98名	100%
둘	國立大								5名	
指摘	私立大								9名	
小計									14名	11.9%
셋	國立大								3名	
指摘	私立大								3名	
小計									6名	5.0%

希望하는 者가 59.7%의 高率을 차지하고 있어
現職業에 대하여 不滿 내지 厭症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業務能率增進을 沮害하는 重大한 原
因이 되고 있다.

3) 轉職을 願하는 事由

「現職場을 뜨고 싶다면 그 主된 原因은 무엇이
나」하는 質問에 대하여 國立大學司書職의 轉職希
望事由는 ①「昇進可能性의稀薄」, ②「經濟的
生活難」③「性格과의不一致」 그리고 ④「專攻
과의不一致」의順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人
事制度의 欠陷에서 오는結果라 할 수 있다.

V. 實態分析의 結果에서

發見된 問題

1. 資質

1) 經歷의 不足

國立大學司書職中 司書職經歷 「10年以上」은
17.4%에 不過한 것으로 보아 不足한 經歷을 지
닌 司書의 業務成果度는 매우 低調할 것이며 이
로써는 本來의 그 機能을 제대로 發揮하기는 어
려울 것이다.

2) 知識의 不足

國立大學 司書職中 大學卒業以上의 學力者는 45.6%에 不過하며 이와 같이 낮은 學力者가 大學의 教授 및 學生에게 提供하는 奉仕의 內容은 매우 不實할 것이 明白하다고 본다.

3) 外國語能力의 不足

外國語解得 ability의 水準도 매우 낮게 나타나 있는바 外國資料處理에 있어서 言語障礙로 因하여業務의 成果度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2. 土氣

1) 業務에 대한 滿足度와 成果度의 低調

國立大學司書職中에는 當初부터 願치도 않은職業을 마지 못해 選擇한데다가 處遇의 不實, 能力의 不足등으로 業務에 대한 滿足度는 매우 낮으며 또各自가 느끼는 所屬圖書館의 業務成果度에 대하여는 73.8%가 否定的인 反應을 보았다. 主觀的인 判斷이 이러한 진대 이를 客觀的으로評價한다면 結果는 더욱 더 甚할 것이다.

2) 處遇의 不實과 社會的 地位에 대한 낮은評價

國立大學司書職의 報酬의 水準은 私立大學과比較하면 그 3分의 2에도 미치지 못할 程度로 매우 낮은 편이며 報酬의 水準이 社會的評價에 미치는 影響이 至大하여 國立大學司書職中各自가 느끼는 社會的評價에 있어서는 72.8%가 이를 낮게評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土氣는 매우 低下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3) 升進機會의 稀薄性

國立大學司書職中 「10年以上」勤續者는 겨우 14.5%에 不過하며 그 原因은 上位職의 定員數가 絶對不足하여 升進의 길은 거의 막혀 있어 優秀한 長期勤續者는 他處로 流出된 結果라고 본다.

4) 將來性에 대한 保障感의 薄弱

將來性에 대한 期待感調查에 있어서 國立大學司書職中 否定的應答者가 66%의 高率을 나타냈으며 司書職從事希望期限을 打診하였더니 「5~6年内」에 그만 두겠다는 應答者가 52.1%이고 無應答者가 29.2%나 되는 것을 보면 81.3%가 將來에 대한 希望이나 期待를 갖지 못하고 失意에 빠져 있음을 엿볼수 있다.

5) 現職業에 대한 安定感의 欠如

또 轉職 할 意思를 가진 應答者가 60.2%로서 壓倒的으로 많아 그 原因을 알아 보았던바 그 主要原因이 ①「昇進可能性의 稀薄」②「經濟的 生活」③「性格과의 不一致」로 나타났다. 「經濟的 生活難」은 一般職公務員에 共通되는 原因이라 할 수 있으나 「昇進可能性의 稀薄」이나 「性格과의 不一致」가 主原因이라는 것은 看過할 수 없는 人事制度의 欠陷이 아닐수 없다.

VI. 現行人事制度의 欠陷과 그 改善 方案

위와 같은 여러가지 問題點은 모두가 人事制度의 欠陷으로 集約되므로 現行人事關係法規를 中心으로 하여 그 實態를 調查하고 欠陷을 補完하는 改善方案을 摂索하기로 한다.

1. 職制

1) 서울大學校圖書館의 4課 1室制

서울대학교설치령에 의하면 圖書館에 収書課, 整理課, 閱覽課, 參考書誌課와奎章閣圖書管理室을 두게 되었으며 各課長은 非專門職인 一般行政職 書記官(3級 甲類)으로서 補하고 室長은 教授職으로 兼補토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圖書館의 管理層으로서는 非專門職인 一般行政職이나 教授職도 無妨하다는 理論인데 「이와 같은 理論은 차치하면 圖書館을 一種의 養老院 같은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憂慮는 오늘날 우리 나라의 國立大學校圖書館의 경우를豫言한 것 같은 느낌이 듈다.

館長이 非專門職인 경우에는 적어도 그 補佐官이나 中間管理層은 꼭 專門職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大學校圖書館의 경우는 間接奉仕機能과 直接奉仕機能을 分擔하여 非專職館長을 補佐하는 部長을 두고 部長에는 圖書館에 造詣가 깊은 教授職, 教育研究職 또는 司書官(2級程度)으로써 補하도록 하고 各課長도 圖書館專攻 教授職 教育研究職 또는 司書官(3級甲類程度)이 兼職하도록 하되 實情에 맞게 適宜 補任할 수 있는 幅度은 規定의 바련이 아쉽다.

2) 地方 國立大學校圖書館의 兩課職制 및 事務分掌

국립 학교 설치령에 의하면 5개 地方 國立 大學校 圖書館에는 收書課 및 閱覽課를 두고 收書課長은 行政事務官으로 閱覽課長은 司書官으로 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館長은 非專門의인 教授로써 兼補토록 되어 있으므로 補佐格으로 部長을 두고 部長에는 圖書館에 造詣가 깊은 教授職이나, 教育研究職 또는 司書官(3級甲類程度)으로써 補하고 部長 밑에 庶務, 整理, 閱覽의 3課를 두고 庶務課長은 行政事務官으로 其他 課長은 司書官(3級乙類)으로써 補하도록 規定의 改正이 時急하다.

그리고 業務分掌에 관한 規定을 보면 圖書館 業務의 核心을 이루는 「整理業務」에 관한 規定이 漏落되어 있는 關係로 大學에 따라서는 「整理業務」를 收書課에서 分擔하고 있는가 하면 어느 大學에서는 閱覽課에서 이를 分擔하는 등 亂脈狀을 들어내고 있으므로 整理課의 増設이 時急하다.

2. 職群 및 職列

現行 공무원 임원령에 의하면 「司書職列」은 一般行政職으로 取扱되어 行政職群에 屬하게 되어 있다. 이는 司書職에 대한 細密한 業務分析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特殊性이 考慮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大體로 大學圖書館業務의 約 3분의 2를 專門的職務로 規定하고 있으며⁽²⁶⁾ 司書業務의 性質은 教育的職務, 調査의職務, 研究의職務 그리고 一般的職務등이 複合된 特殊職으로 認定되고 있다.

따라서 大學司書는 이를 專攻有無에 따라 主題專門書와 一般司書로 區分하여 前者は 教授職이나 教育研究職등 別定職에 屬하게 하고 後자는 一般職으로 그대로 두되 學事職群에 屬하게 하거나 單一職群으로 하고 編史研究職列이나 學藝研究職列 같은 規定으로 改正함이 바람직하다.

3. 職 級

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一般職公務員은 1級에서 5級까지 9個職級으로 區分되어 있으며 總 50個職列中 47個職列(94%)이 그 最高職級을 1級 내지 3級 甲類로 規定하고 있으면서 「司書職列」,

「通信技術職列」, 「電送技術職列」등 3個職列(6%) 만이 3級 乙類以下를 각各 그 最高職級으로 하고 있다.

또 법원공무원 규칙에 의하면 司書職은 司法行政職群속에 「司書職列」로 規定되어 있고 그 最高職級도 3級甲類 司書官으로 規定되어 있다.

本來 國立大學의 司書職은 그 業務의 難易度나 性質로 보아 他種 圖書館의 司書職보다 그 最高職級을 높여 2級까지 策定함이 바람직하며 3級以上, 各級類의 職名은 「司書官」으로 通用토록 하는 規正의 改正이 아쉽다.

4. 定 員

1977年 現在 6個 國立大學校의 司書職의 定員總數는 121名에 不過하며 그中 3級乙類司書官의 定員은 3名뿐이므로 司書官 1名이 40名의 部下를 統率해야 하는 結果 그 統率의 範圍가 너무 廣範하다.

또 職員總數는 312名이며 이中 臨時職이 150名(48%)에 違한다.

이러한 職員에 의하여 運營되는 大學圖書館이 제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없을 것은 明若觀火하다. 따라서 各種, 各級職員의 定員確保가 時急하다.

(1) 高學力의 優秀한 主題專門司書를 確保하기 위하여 教授職 및 教育研究職의 定員策定이 要求된다.

(2) 專門的 業務를 優秀하게 處理하기 위하여는 4級以上의 司書職이 이를 擔當케 하고 非專門的業務나 單純業務는 打字手, 補助手, 整理手등 雇傭職이 擔當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4級以上 司書職의 定員과 雇傭員定員의 增員이 要求된다.

(3) 그 밖에 圖書館業務機能화에 體伴되는 技術職의 定員確保가 絶對로 必要하다.

5. 採 用

1) 應試資格

공무원 임용시험규칙에 의하면 司書, 獸醫, 醫務 2, 業務, 看護, 船舶 2, 地籍, 航空 4職列 등 總 13個職列의 應試에는 각各 資格證의 區分이

(26) 日本, 全國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 大學圖書館の 業務分析,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68), pp. 30-96.

規定되어 있고 司書는 正司書와 準司書로 區分되어 있으나 「正司書資格證을 가지고 있어도 司書書記(5級)가 될 수 있기 때문에 司書資格을 區分한 法의 意圖는 알 수가 없다.」⁽²⁷⁾ 5級 같은 下位職級採用에 있어서 學歷과 資格의 最下資格만을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學歷所持者가 合格의 영광을 차지하고 있으며 學歷에 있어 가장 過格者는 不利한 位置에 몰리고 마는 結果가 나타나고 있다.」⁽²⁸⁾ 또 「지나친 學歷을 가지고 合格한 사람은 本來 知能도 좋지 못한 사람이며任用된 後 學歷關係로 土氣도 얕고 따라서 勤務能率도 오르지 않는다.」⁽²⁹⁾

그러므로 5級司書職의 應試資格은 「正司書 또는 準司書」로 하지 말고 아주 「準司書」로 局限하여 그 最下資格과 最上資格을 同時に 規定하여야 할 것이다.

2) 試驗科目

공무원임용시험에 의하면 ① 司書職列 3級公務員의 第2次試驗科目은 圖書館學關係科目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外見上 司書職의 特殊性이 考慮된 規定처럼 보이지만 實은 無意味한 規定이다. 왜냐하면 各級 司書職의 各種 任用試驗 應試資格으로서는 司書資格證所持가 그 前提要件으로 되어 있으며 이 圖書館學關係科目들은 司書資格取得教育課程에서 꼭 計修토록 規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級 類司書職에 대하여는 管理能力을 評價할 수 있는 行政學이나 經營學科目이나 外國資料處理能力을 評價할 수 있는 外國語科目등으로 一部 代替함이 바람직하다.

② 4級司書職의 任用試驗科目으로도 圖書館學關係科目이 너무 많으므로 一般行政職으로서 지녀야 할 素養을 評價할 수 있는 行政法이나 財政學과 司書職에게 特別히 要求되는 外國語科目으로大幅 代替되어야 할 것이다.

③ 5級司書職의 任用試驗科目에 있어서는 行政職列과 同一하게 規定되어 있으나 司書業務의 對象인 外國語資料를 處理할 수 있는 外國語能力을

評價할 수 있는 科目을 더 課할것이 切實히 要求된다.

VII. 結論

1. 考察의 要約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發展을 沮害하는 要因은 여러가지가 複合되어 있어 簡單히 解決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가장 基本的이고 決定的인 要因은 大學圖書館에 대한 認識이 稀薄한데서 緣由되는 人事行政의 缺陷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마라서 이 研究에서는 우선 大學圖書館의 本來의 機能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機能을 充분히 發揮함에 必要한 바람직한 資質을 檢討하고 外國의 大學司書들의 資質과 그 處遇에 대하여 言及하였다.

그다음 우리나라 大學司書職의 實態는 果然 어찌한지 즉 年齡, 學歷, 經歷, 專攻, 司書資格, 外國語能力등을 中心으로 그들의 背景을 觀察하였으며 아울러 精神的 次元에서 그들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現職務에 대한 滿足度, 業務의 成果度報酬 및 社會的 地位에 대한 評價, 그리고 現職業에 대한 安定感, 將來性에 대한 保障感等 土氣에 대한 觀察을 試圖하였다.

그리하여 實態分析의 結果, 우리나라 大學司書職 특히 國立大學의 司書職의 背景은 매우 不實하며 또 그들의 土氣는 極度로 低下되어 있음을 알아 내었으며 그 原因에 대하여 究明하였던 바 여러가지 原因을 發見할 수 있었다. 즉

〈첫째〉 職務分類에 있어서 司書業務의 專門性 내지 特殊性은 全히 考慮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一般事務職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待遇를 받고 있다.

〈둘째〉 國立大學 司書職에 대한 處遇가 매우 不實하므로 資質이 낮거나 適性에 맞지 않는 司

(27) 金基泰, 圖書館行政에 關한 法的側面에서의 研究, (서울 大學校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0), p. 56.

(28) 朴東緒, 「人事行政의 再檢討」, 行政論叢, 第3卷 第1號,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5), p. 88.

(29) J. G. March & H.A. Simon, *Organization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58), p. 16.
朴東緒, 前揭書, p. 131 再引用

書職이 많다.

〈세째〉 司書職의 最上職級이 3級乙類로 낮게規定되어 있는 까닭에 昇進의 機會가 極히 稀薄하여 有能한 司書의 確保가 어렵다.

〈네째〉 上位職級의 司書職定員數가 極少數이기 때문에 下位職司書들이 專門的業務를 다루어야 되므로 能力이 不足하여 業務의 成果度는 매우 낮고 이들 能力不足을 补充하기 위하여 定規職數와 거이 비슷한 數의 臨時職을 雇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은 모두 司書職에 대한 認識不足이 가져오는 消極的 態度가 빚어내는 人事行政의 缺陷으로集約된다.

2. 代案의 要約

위에서 言及한 바 있는 人事行政의 缺陷을 是正, 補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改善方案을 提示한다.

① 非現實的이고 不合理한 要素를 內包하고 있는 國立大學校圖書館의 職制는 現實性있고 合理의인 職制로 改編되어야 한다.

② 現在 法의으로 規定된 正司書와 準司書外에 專門司書라는 資格을 認定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大學의 教授이나 教育研究職과 같은 處遇를 받을 수 있는 法的措置가 必要하다.

③ 專門司書의 養成을 위하여 國立大學校에 圖書館 및 情報學研究所를 두어 研修課程을 新設한다.

④ 行政職群에 屬해 있는 司書職列은 이를 學事職群에 屬하도록 改編하는 同時に 2級甲類까지 昇進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3級乙類 以上 2級甲類까지 司書官이란 共通 職名을 附與토록 關係法規를 改正한다.

⑤ 國立大學校圖書館에는 若干의 研究教授, 教育研究職의 定員을 配定하고 4級以上의 司書職의 定員을大幅 增員하고 5級司書職의 定員은 原則적으로 配定하지 않고 그 代身 技術職 및 雇傭職의 定員을 增員도록 한다.

⑥ 國立大學司書職의 任用에 있어서는 반드시 公開競爭試驗과 特別採用試驗을 併用하도록 하는 法的措置가 必要하다.

⑦ 各級 司書職의 各種 試驗科目에 있어서는

圖書館學科目 代身에 第二外國語 및 其他外國語 科目으로 代替도록 한다.

⑧ 國立大學校에는 一部 私立大學의 경우처럼 大學院에 圖書館 및 情報學專攻課程을 新設하고 學部課程에는 教養科目으로 圖書館 및 情報學講座를 開設도록 한다.

3. 앞으로의 展望

위에서 列舉한 國立大學校圖書館改善方案은 大學의 發展, 나아가서는 國家發展을 위하여 早晚間 꼭 具現시켜야 할 目標이며 8個項中 ① 職制의 改編, ④ 職群 및 職列의 改編, ⑥ 任用方法의 改善, ⑦ 外國語試驗科目으로의 代替 ⑧ 項中學部課程에의 圖書館 및 情報學講座 開設 등 措置는 行政當局의 各層政策決定過程에서 若干의 關心만 돌리드래도 容易하게 改善될 수 있으리라 본다.

다만 아직 國民所得이 그리 높지 못하여 豐裕치 못한 國家財政形便을勘案할 때 위 改善方案中 ② 專門司書制度의 新設 및 處遇改善, ③ 專門司書養成研修課程의 新設, ④ 國立大學司書要員의 定員增員, ⑧ 項中 國立大學校大學院의 圖書館 및 情報學專攻 課程의 新設등은 당장 實現시키기는多少 어렵다고 判斷되지만 國民所得이 칠선 높아지고 國家財政形便이 好轉될 1980年代에는 期必可具現되도록 이에 대한 行政當局의 繼密한 長期計劃이樹立되고 積極的인 推進이 있기를 促求하면서 글을 맺는다.〈끝〉

〈附 錄〉

大學圖書館 司書職에 관한 設問紙

다음 設問에 대하여 ()안에 □표로 해답 해주시고 數字로 해답하실 것은 아라비아 數字로 正確하게 記入하여 주십시오.

- 年齢: 만()세
- 性別: ① () 男性 ② () 女性
- 勤務圖書館의 設立者 區分:
① () 國立 ② () 私立
- 勤務圖書館의 所在地:
① () 서울 ② () 地方
- 階級(國立인 경우):

① () 級 () 類 ② () 고용원

6. 職位(私立인 경우) :

- ① () 課長 ② () 主任
 ③ () 平職員 ④ 其他 ()

7. 學 力 :

- ① () 大學院 () 學科卒業
 ② () 科大學 () 學科卒業
 ③ () 科大學 () 學科中退
 ④ () 初級大學 또는 專門學校
 () 學科卒業
 ⑤ () 高等學校卒業
 ⑥ 其他 ()

8. 取得한 資格證의 種類 :

- ① () 正司書 ② () 準司書
 ③ () 司書教師 ④ () 없음

9. 資格取得教育機關 :

- ① () 大學院 ② () 大學圖書館學科
 ③ () 1年課程 ④ () 短期講習會
 ⑤ 其他 ()

10. 司書職經歷 : () 年 () 個月

11. 現職場勤務期間 : () 年 () 個月

12. 現階級 또는 職位로서 勤務한 期間 :

() 年 () 個月

13. 다음 外國語에 대한 귀하의 능력은 각각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上 : 外國圖書의 序文・目次・書評 등을 한번쯤 읽어보고 그 大意를正確하게 파악하여抄譯할 수 있을정도

中 : 外國圖書의 序文・目次・書評 등을 읽고 翻譯함에 있어 힘겨울지 않을정도

下 : 外國圖書의 著者名・書名・序文・目次 등을 읽고 더듬더듬 翻譯할 수 있을정도

上 中 下

- | | | | |
|-----------|-----|-----|-----|
| ① 英 語 | () | () | () |
| ② 獨 語 | () | () | () |
| ③ 佛 語 | () | () | () |
| ④ 中 國 語 | () | () | () |
| ⑤ 日 本 語 | () | () | () |
| ⑥ 其他() 語 | () | () | () |

14. 司書職은 귀하가 須하시던 職業이었습니까?

① () 그렇다 ② () 그렇지 않다

15.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現職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 매우 滿足스럽다.
 ② () 약간 滿足스럽다.
 ③ () 보통이다.
 ④ () 약간 不滿스럽다.
 ⑤ () 아주 不滿스럽다.

16. “願하지 않던” 職業이라면 지금에 와서는 現職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 매우 滿足스럽다.
 ② () 약간 滿足스럽다.
 ③ () 보통이다.
 ④ () 약간 不滿스럽다.
 ⑤ () 아주 不滿스럽다.

17. 귀하가 볼때 귀圖書館의 司書業務는 원만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 그렇다.
 ② () 그렇지 않다.

18. “그렇지 못하다”면 그 原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중 重要한 것 셋만 골라서 重要度에 따라 1, 2, 3, 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 人力의 不足
 ② () 知識의 不足
 ③ () 外國語 能力의 不足
 ④ () 人事管理上의 缺陷
 ⑤ () 業務規定의 缺陷
 ⑥ () 좋지 않은 霉圍氣
 ⑦ () 上司의 不必要한 干涉
 ⑧ () 其他 ()

19. 今年度 前半期를 통하여 귀圖書館에서의 귀하의 月平均 收入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당, 상여금 등 합하여 月 약 () 만 () 천원

20. 귀하의 모든 與件으로 보아 현재 귀하의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라고 느끼십니까?

- ① () 매우 높다.
 ② () 높은 편이다.
 ③ () 중간 정도이다.
 ④ () 낮은 편이다.
 ⑤ () 아주 낮다.

21. 現在의 司書職 業務를 열심히 수행한다면 앞

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 ① ()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 ② ()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 ③ () 아마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이다.
- ④ () 도저히 그렇게 안되리라고 믿는다
- ⑤ () 알수없다.

22. 혹 다른 職場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라도 있으십니까?

- ① () 있다.
- ② () 없다.

23.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 ① () 다른 大學圖書館으로 옮기고 싶다
- ② () 다른 圖書館으로 옮기고 싶다
- ③ () 現大學의 다른 직책으로 바꾸고 싶다.
- ④ () 아주 다른 직업으로 바꾸고 싶다
- ⑤ () 其他()

24. 現職場을 뜨고 싶다면 그 主된 原因은 무엇입니까?

- ① () 經濟的 生活難
- ② () 升進可能性의 稀薄
- ③ () 專攻과의 不一致
- ④ () 能力의 不足
- ⑤ () 社會的 認識 不足

⑥ () 性格과의 不一致

⑦ () 其他()

25. 앞으로 언제까지 司書職에 종사하실 생각이십니까?

① () 年 정도더 ② () 은퇴시까지

26. 귀하가 승진될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시기는 대개 언제로 보십니까?

- ① ()년 이내
- ② () 알 수 없다.
- ③ () 승진되지 못할 것이다.

27. 귀하가 승진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최고 직급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국립대학 근무자만 기입하십시오)

- ① () 2級이상 ⑤ () 4級乙類
- ② () 3級甲類 ⑥ () 5級甲類
- ③ () 3級乙類 ⑦ () 알수없다
- ④ () 4級甲類

28. 귀하가 승진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최고 직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사립대학 근무자만 기입하십시오)

- ① () 館長 ④ () 課長
- ② () 副館長 ⑤ () 主任
- ③ () 司書長 ⑥ () 알수없다

〈끝〉